

문장완성검사의 해석

■ 실시 방법

- (1)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실시될 수 있으며, 약 20분에서 40분 정도의 시간 소요됨
- (2) 검사지를 주면서 피검자에게 지시문을 읽어보도록 하고 질문이 있으면 하도록 함
- (3) 검사지에 예문을 두어서는 안 된다.
- (4) 피검자가 검사를 시작한 시간과 끝낸 시간을 기록해 두도록 한다.
- (5) 검사를 완성한 후 가능하면 질문단계를 실시하도록 한다.
- (6) 중요하거나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문항에 대해서는 “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해 주십시오.”라고 부탁함
- (7) 실시 방법은 피검자가 직접 문장을 읽고 반응을 써야 하지만 심하게 불안한 피검자에게는 문항을 읽어주고 대답한 것을 받아 적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함
- (8) 구술 시행은 반응시간, 얼굴 붉어짐, 표정변화, 목소리 변화, 전반적인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피검자가 어떤 문항들에서 막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줌
- (9) 이러한 피검자는 종종 검사 후 감정의 해소의 기회가 될 수 있음

■ 일러주기

- (1) 답에는 정답, 오답이 없으면 생각나는 것을 쓰도록 할 것
- (2) 글씨나 글짓기 시험이 아니므로 글씨나 문장의 좋고 나쁨을 걱정하지 말 것
- (3) 주어진 어구를 보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을 쓸 것
- (4) 시간은 제한이 없으나 너무 오래 생각지 말고 빨리 쓰도록 할 것

■ 반응유형별 분류

- ① 고집형: 내용의 변화가 적고, 특정의 대상이나 욕구를 고집하며 반복이 많은 사람
→ 인성의 경직성, 흥미가 거짓임을 나타냄
- ② 감정 단(短) 반응형: 짙막한 감정적 어휘로 반응하는 사람
→ 저지능이거나 감정통제가 되지 않음
- ③ 장황형: 장황하게 뻘뻘하게 적어 넣는 사람 → 신경증적인 사람이나 강박 경향이 있음
- ④ 자기중심형: 어느 문항이고 자기중심의 주제로 바꿔 버리는 사람
→ 미숙한 사람에게 잘 나타남
- ⑤ 허위반응형: 도전적인 반응으로 시종하는 사람
→ 자기를 잘 보이게 하려는 방어태도의 출현으로 볼 수 있음
- ⑥ 공상반응형: 비현실적인 생각이나 공상을 말하는 사람
→ 도피적인 인성이거나 검사에 대한 방어적 태도를 나타냄
- ⑦ 모순형: 검사 전체에 모순이 보이는 사람 → 무의식적인 갈등을 나타냄
- ⑧ 반문(反問)형: 확실히 결정짓지 못하는 사람 → 권위에 대한 반항의 표현일 수 있음
- ⑨ 은닉형: “말할 수 없다”와 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 → 자기방어적인 태도
- ⑩ 거부형: 반발 → 방어적 태도
- ⑪ 병적 반응형: 망상 → 정신분열증

■ 해석 요인 분류

- 1) 성격적 요인: 지적능력, 정의적 측면, 가치 지향적 측면, 정신역동적 측면
- 2) 결정적 요인: 신체적 요인, 가정적, 성장적 요인, 대인적.사회적 요인

■ 해석의 초점

- 1) 내적인 충동에 주로 반응하는가, 외부환경 자극에 주로 반응하는가?
- 2)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정서적 반응이 충동적인가 아니면 잘 통제되는가?
- 3) 자신의 책임이나 타인의 관점을 적절히 고려하는 등 사고가 성숙된 편인가,
아니면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인가?
- 4) 사고가 현실적인가 아니면 자폐적이고 공상적인가?

■ 해석 시 유의점

- 1) 모든 것을 문제로 보지 말라
- 2) 반복적인 답에 유의하라 → 1:1로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
- 3) 특별한 대답에 표시하고 확인하라
예) "가장 무서운 것은?..... 유치원 버스 운전자 아저씨."
- 4) 감정적으로 고조된 표현에 관심을 기울여라. 예) 죽어도 싫다, 끔찍하다 등.

※ 영역별로 나누어 해석하고 전체를 통합해서 분석한다.